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 거 일  
소설가·사회평론가

수능 시험도 끝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진로에 고민할 터이다. 진로를 정할 때는 자신의 적성과 함께 사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사회 환경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모든 것들이 빠르게 바뀔 뿐 아니라 변화가 가속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변화가 가속되는 근본 원인은 지식의 가속되는 확장이다. 단 몇 해 만에 지식의 총량이 급절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지식은 점점 빠르게 낡아간다.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10년 뒤면 거의 다 낡아 버리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현대인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현대 교육의 진정한 목표다.

점점 빨리 바뀌는 환경에 대한 적응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자신이 고를 수 있는 대응책은 되도록 기초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사회 환경에 필요한 지식을 얻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좁은 응용 학문보다는 기초 학문이 낫다. 당장 취직에 도움이 되는 좁은 분야를 전공하는 것은 '지나친 전문화'의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을 열심히 얻어야 한다. 지식은 언어에 담기므로 학생들은 언어 습득에 공을 들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언어는 영어와 수학이다. 영어는 배우기가 비교적 쉽고 배울 기회도 많다. 수학은 스스로 배우기가 무척 어렵고 기회도 적다. 게다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학을 일찍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두려움은 수학의 본질과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에서 주로 나온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미워한다.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혼자서 수학을 이해하려 애쓰는 한 지식인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는 데는 수학철학 입문서를 읽는 것이 좋다.

수학철학을 통해서 수학의 본질과 모습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수학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친근감이 생긴다. 이어 수학사를 읽어 수학이 자라 온 과정을 알게 되면, 수학의 모습이 어렵듯이 아니라 눈에 들어온다. 수학철학이나 수학사가 쉬운 학문은 아니지만, 진정한 입문서를 따르면 별다른 수학 실력이 없는 대학생도 따라갈 수 있다.

수학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여학생들은 특히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수학적 능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뒤진다는 통설은 거의 틀림없이 그르다. 우리의 다른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능력도 원시 시대에 다듬어졌을 터인데, 원시 시대의 환경에서 수학적 능력이 여성에게 덜 필요했다는 증거는 없다. 설명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뉴턴과 같은 위대한 수학자들의 수준에서 나오지 이미 존재하는 수학 지식을 배워서 쓰는 수준에선 나올 리 없다.

따라서 여성을 수학과 멀어지게 만든 요인들은 모두 문화적 요인들이다. 과학과 수학은 여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서, 여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을 배울 기회를 처음부터 줄였다. 그

리고 여성 과학자와 수학자가 드물다는 사실이 그런 선입견을 정당화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은 빠르게 늘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터라, 현대인에게 식수(numeracy : 산술 능력)는 근대인에게 식자(literacy : 문자 해독 능력)가 지녔던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사정은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다. 수학 실력이 뒤지면, 전문적 과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워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기 어렵다. 요행히 언더라도, 유리천장을 깨고 상층부로 진입하기 어렵다.

여성도 현대 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학과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만이나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낮고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지금, 여성의 경제 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긴급하다.

여성도 과학과 수학에 대한 적성이나 능력이 뒤진다는 편견을 없애고 여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사회 정의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교칼럼



장 현 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몸은 어떤지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고 싶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옥살이하는 동안 엄마의 가슴은 너와 같이 하고 있던 다. 이번 성탄에는 가족품으로 돌아오면 참 좋겠다. 사랑한다. 아들이”(어느 양심수 어머니의 편지글)

양심수는 시대의 등불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있는 곳에 양심의 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추위로 있는 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상식이 통하고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친 것입니다.

박영호(노점철거 항의 투쟁 3년4월), 김

감옥에 있는 양심수에게 보내는 편지

덕용(국가보안법 7년), 김기종(주한미국 대사 피습 12년), 한준태(국가보안법 1년6월), 최민(국가보안법 1년6월), 이용섭(국가보안법 1년), 윤경석(국가보안법 무기), 전석렬(국가보안법 5년), 윤영일(국가보안법 2년), 이상일(부당하고 철화 원칙 투쟁 미결), 임승라(부당하고 철화 원칙 투쟁 미결), 박정상(고 배재형 열사 정신계승 투쟁 3년), 손정(국가보안법 3년), 신인택(국가보안법 1년), 정석만(박근혜 최순실게이트 검찰청 항의 투쟁 2년), 김경용(국가보안법 5년), 김성욱(국가보안법 3년), 이영수(국가보안법 4년)…

이상은 ‘양심수 석방 광주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명단의 일부입니다. 임들을 위한 양심수 석방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성탄절 특사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촛불의 힘과 민중의 힘을 노래했지요. 또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야기 들었습니다. 먹먹함과 절절함이지만 그래도 당당함과 비굴하지 않고 뚜렷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 쪽방을 얻어 폭염인 여름 그리고 가을 지금 한파 가운데에서도 매일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

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동생이 감옥에 끌려간 지 5년 서럽고 외로운 시간 하지만 감옥에 간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굴종과 예측의 시대 자취를 외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큰 정치를 하려면 양심수들이 국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여러분 곁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을 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있는 편지글에 필자는 양심수 가족들과 함께 다짐했지요. “그저 말없이 환하게 웃던 사람! 분단 법정에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내란의 추억되어 쇠사슬로 생각 묶어 있다/ 반쪽으로 잘린 조국 목이 메어 뒤틀린 역사 물줄기/ 온몸으로 막아내는 광장의 촛불 가슴이/ 수의 입은 인권 철창살에 갇혀 있다/ 진보세력 종북이라는 족쇄처럼 따라다니고/ 용공조작 쇠사슬로 묶어 감방에서 짓누르는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사법살인이다/(종북/ 홀로가 아닌 동자들 어깨 서로 기대며 연대하는 꽃/ 외세가 아닌 자주 해방 노래하는 평

화 길/ 불의의 시대 견어내고 평등세상 놀린 자 일어나/ 갇힌 자 석방되고/ 사랑과 진실 열싸안고 춤추며/ 정의와 평화는 맞추고/ 허기진 배고픔 극복(국가보안법)을 먹어 개운하게/ 분단된 조국 하나 되는 진통이다/ 이카로스의 날개 백두산에서/ 판문점 철조망 지우고 한라산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자주·민주·민중·평화·통일/ 해방세상 비상하는 날개 짓/ 카이로스 시간이다.”

이렇게 저의 종시를 선물했지요. 이제 하늘에는 영랑! 땅에는 평화 예수 성탄입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 풀어주고, 놀린 자 자유롭게 하신다는 나사렛 선언을 했습니다. 양심수 석방은 촛불과 주님의 명령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기도하며 아들이 질을수록 새벽은 옵니다. 감옥 안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길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양심수 석방과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2017년 12월 15일) 새벽 예배당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샬롬(평화)으로 안부 인사합니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社說

목포 신항만 자동차부두 사용료 감면 유지를

해양수산부가 목포 신항만의 자동차부두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폐지키로 해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감면율 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전국 6개 항만의 시설 사용료 감면 해택을 내년부터 20~30% 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중 목포 신항만은 사용료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항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 이를 해수부가 받아들여면서 감면 폐지가 결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항만의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하향 조정할 것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 목포 신항만은 사실상 자동차 전용부두라고 할 정도로 물동량 중 자동차 비중이 높고, 이 때문에 목포 신항은 유일하게 자동차 운반선들이 30%의 부두 사용료 감면을 받는 항만이었다. 목포 지역이 자동차 부두 사용료 감면 폐지를 항만 폐쇄나 마한 가지로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자동차 부두로서의 위상을 증명하듯

목포 신항만의 물동량 가운데 자동차 비중은 2014년 56.7%에서 2015년 61%, 2016년 64.3%, 올해 9월까지만 해도 79.6%를 보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다른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는 수년 동안 7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목포 신항 자동차 부두는 고작 2년째 30% 감면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해수부의 결정은 행정편주의의식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목포시는 그동안 항만 활성화를 위해 지일 조례까지 만들어 자동차 물량을 유치했다. 자동차 부두 사용료 감면 폐지는 곧바로 자동차 물량의 다른 항만으로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목포 신항은 자동차 외에 대체 화물이 없다. 정부는 목포 신항에 세월호를 거칠할 당시, 신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자동차 부두 사용료 감면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 철회 다행스럽다

무안 국제공항 야간 운항 제한 방침이 철회됐다. 한때 관제사 부족을 이유로 24시간 운영 중인 무안 국제공항의 운항 시간을 주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거센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일단 철회됐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조무영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면담하면서 무안공항을 기존 24시간 운항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로써 야간 운항 제한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전남도의 우려는 불식됐다. 관제사 부족 문제는 '부산항공청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관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항공청은 애초 내년 1월부터 무안공항의 야간(오후 9시~이튿날 오전 7시) 운항을 제한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노선의

30%가량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6시 사이에 운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안공항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객이 부족한 마당에 그나마 장점이라 여겨졌던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해지면 공항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무안 국제공항 야간 운항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회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 이뤄진 의원들의 뒤늦은 건의안 제출은 그저 성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됐든 야간 운항 제한 방침 철회로 이제 무안공항은 낮에만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반쪽 공항으로 전락되지는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남도는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이방인’과 ‘시시포스 신화’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원래 축구 선수를 꿈꿨다. 꿈꿨던 어린 시절, 동네에서 축구를 하며 뛰어놀 때 그가 택한 포지션은 골키퍼였다. 신발 밑창이 가장 덜 닳기 때문이었다.

알제리에서 열일곱 살 때까지 학교 대표 선수로 뛰었지만 가난과 결핵으로 결국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축구를 인생의 학교로 여긴 그는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이미 수많은 경험들을 안겨 주었지만, 인간 존재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 내가 알고 있

는 모든 것은 오직 축구에서 배웠다.”

프랑스로 건너가 작가가 된 카뮈로서는 선수에 대한 꿈의 좌절이 오히려 행운이 된 것 같다. 그가 도덕적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의문이지만,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공은 기대하는 방향으로부터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골키퍼를 하며 알았다.”

러시아월드컵 초 추천 과정에서 카뮈의 말이 실감 나게 다가왔다. 4번 포스트에 남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남은 조가 F조와 H조였다. 한국이 전 대회 우승팀 독일과 북중미의 맹주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강호 스웨덴이 포함된 F조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폴란드·콜롬비아·세네갈과 함께하는 ‘행운의 H조’가 됐다. 포스트에 담긴 공은 결국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왔다.

그러나 행운이라 생각한 일이 결국 행운이 아니었던 경우는 솔하게 많다. 불운도 마찬가지다. 확실한 1강이 있는 F조는 독일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한 명의 티켓을 세 팀이 다투지만, 전력이 엇비슷한 H조는 네 팀이 몰려서

오히려 어려운 여건이 계속될 수도 있다.

6개월 남은 러시아월드컵. 신대홍호의 동아시아권 중권전과 북반쪽 경기를 보며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이런 전력이라면 F조에서 ‘승점 재판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네 경기 연속 골 폭풍을 일으키고 권창훈은 리그와 다중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축구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간 펼쳐진다. 딱 여기까지만 사실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가설일 뿐이다. 또 전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축구다. 그래서 앞일은 모른다. 카뮈처럼,

/ 유재만 편집부 부국장 jkyou@

기 고



김 양 식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연시에는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 사고가 다른 시기에 비해 잦다. 최근 3년간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2만 4043건, 2015년 2만 4399건, 2016년 1만 9769건 등으로 약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도 연중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여 30분마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방식으로 단속을 펼치고, 낮에도 불시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이자 가정 파괴다

정 아닌 전정을 치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런 음주운전 사고를 뿌리 뽑고자 정부는 2007년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더하여 가중 처벌토록 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 도입 전후 7년을 비교해 보면 음주사고 건수는 19만 1220건에서 21만 6306건으로 도입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33만 8011명에서 38만 7501명으로 증가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0.03%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관련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기준은 지난 1962년에 정해진 뒤 단 한 번도 개정됨이 없이 56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2002년도에 음주운전 처벌·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한데 비해 음주운전 사고는 급격히 감소(39.2%)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을 막는 방zimmer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만 심어준다는 지적이 많다. 2016년도에 실시한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봐도 소수 한전만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5%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할 이유는 간단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고로 이어져 타인이 사망한 경우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한 가정이 파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이자, 가정파괴범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을 죽게 했다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가피해자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경각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이나 법적 처벌 기준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음주를 한 이후에는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 음주운전은 내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 자동차 운전자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